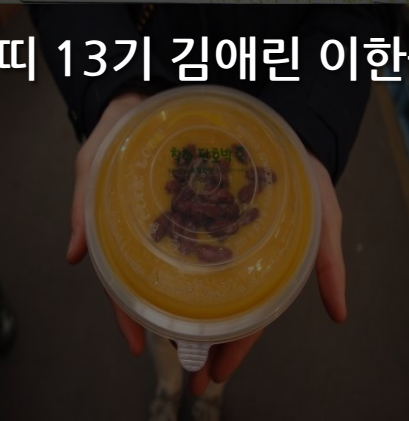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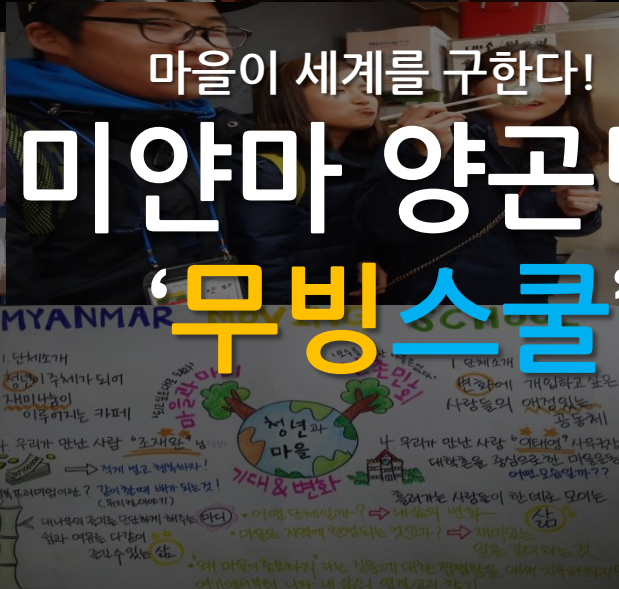




라운아띠 13기 김애린 이한솔 정태규 최종옥 홍선진

라운아띠 13기 미얀마 양곤

우리의 무빙스쿨



1. 무빙스쿨 주제 : 청년과 마을

2. 우리의 무빙스쿨

노원구 공릉동 '마을과 마다'
서대문구 신촌동 '신촌민회'

3. 또 하나의 무빙스쿨

자발적 불편
도깨비 시장

4. 우리의 소감

우리의 무빙스쿨

1. 무빙스쿨 주제: 청년과 마을



청년실업, 고용불안, 낮은 취업률, 학벌주의와 최저임금 등 청년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 청년은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방법' 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경쟁하여 살아남는 방법' 에 익숙해 지고 있다.

아띠들의 고민!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현실에 부딪혀 그냥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맞춰 살아가야만 할까? 함께 살아내기 위해서, 함께 즐겁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은 없을까?

우리의 무빙스쿨

2. 우리의 무빙스쿨, '마을과 마디'

첫 번째 만남, '마을과 마디': 서울 노원구 공릉동 657-7 1층



노원구가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인 북카페 '마을과 마디'는 공릉동 공공기숙사 1층에 조성되어, 2014년 3월 1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곳은 **노원구 일대 지역 주민과 청년들이 주인이며 문화 공간이 적은 공릉동 일대에 건강한 문화 공간을 조성해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토록 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복원에 앞장서고 있다.**

운영 프로그램

재미 나눔 프로그램, 바리스타 양성 프로그램, 쥬베와 댄스를 통한 문화프로그램, 우리마을명사초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우리의 무빙스쿨

2. 우리의 무빙스쿨, '마을과 마디'

우리가 만난 사람 '조재완' 점원님 : "되고 싶은 대로 되세요"

마디

대나무는 일주일에 3미터까지 자라는데 잠시 성장을 멈추고 쉬어가는 구간이 '마디' 이다. 마찬가지로, 마을 사람들이 숨가쁜 일상을 벗어나 여유를 찾으면서 하는 바람에서 붙인 이름이다.

싱싱함

저의 무기는 싱싱함 이죠~(?)



원안

청년들의 삶이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삶, 마디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현재의 삶에 대한 '대안' 이 아닌 언젠가는 원래 그러했던 '원안' 으 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재미

마을과 마디에서는 '재능' 이라는 말 대신 '재미' 라는 말을 쓴다. 재능기부라는 말은 일방적인 느낌이지만, '재미' 는 보다 쌍방향적이고 어느 특출난 사람의 기능이 아닌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행복프리미엄

VIP석에서 뮤지컬을 보기 위해서는 25만원 정도의 돈이 든다. 그러나 같이 모여서 춤을 추고, 공연을 계획하면 그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같은 크기의 행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마을과 마디'는 그러한 행복프리미엄을 쌓아가는 공간이다.

우리의 무빙스쿨

마을과 마디 풍경

2. 우리의 무빙스쿨, '마을과 마디'



▲ 북카페인 '마을과 마디'는 한쪽 창문을 따라 누구나 쉽게 꺼내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진열되어 있고, 중앙 벽면에는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새해 소원이 적힌 포스트잇이 붙여져 있다. 고등학생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기도 하다.



◀ 인터뷰를 마친 이후에, 조재완 점원님께서서는 역으로 오늘 함께한 소감을 물으셨고, 각자의 소감과 하고 싶은 말을 담은 영상을 조재완 점원님의 아이폰에 남기고 돌아왔다.

우리의 무빙스쿨

2. 우리의 무빙스쿨, '신촌민회'

두 번째 만남, '신촌민회':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24길 16 카페 체화당



운영 프로그램

찾아가는 간담회(주 1회, 신촌 곳곳을 직접 찾아가 마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다), 신촌논단(월 1회, 청년주거 등 특정 주제를 선정해 진행하는 열린 토론회), 신촌민회(연 1회, 간담회와 신촌논단의 연속선상에서 이뤄지는 마을 총회이자 마을 축제), 신촌레포트(1년 간 마을 곳곳과 논단, 민회를 통해 나눴던 이야기를 엮어내는 일)

마을의 이슈로부터 마을의 토론으로, 마을의 토론으로부터 문제의 해결로 이어지는 **풀뿌리회의체**이자 **토론공동체**이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같이 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걷는 즐거움으로부터 스스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걸음교실이다. 카페 체화당과 풀뿌리사회지기 학교, 신촌민회 세개의 단체가 하나의 법인을 이루고 있으며, 대학촌 마을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음.

우리의 무빙스쿨

2. 우리의 무빙스쿨, '신촌민회'

우리가 만난 사람 '이태영' 사무국장님: 흘러다니는 사람들을 한곳으로!

대학촌

신촌은 1인 세대와 대학생들이 많은 공간이다. '섬미산 공동체'와 같은 마을운동의 방식이 반드시 모든 지역에 공통되게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렇다면 과연 대학촌을 중심으로 한 마을운동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라는 고민으로 신촌민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낙선

서대문구 구의원 선거에 출마하셨으나 ... (?)
응원합니다!

물음

마을을 둘러싼 고민, 의문, 물음을 애써 억지로 지우려고 하지 말고, 이 찝찝함을 가지고 미얀마에 다녀왔으면 좋겠다^^.



연결고리

마을에 대한 고민 이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그때, 꼭 마을이나 지역이 자신의 삶에 포함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대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나 삶에 대한 연결고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마을

'마을'의 개념이 꼭 하나의 지역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흩어져 있는, 흘러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 곳으로 모일 수 있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고민이다. '마을'은 어떤 지역사람들 뿐만 아니라 변화에 개입하고 싶은 사람들의 애정있는 공동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우리의 무빙스쿨

2. 우리의 무빙스쿨, '신촌민회'

신촌민회(+체화당) 풍경



◀ 카페 체화당 내부 모습



▲ 지하에서는 마을 아이들의 영어교실이 진행되고 있었고, 어머니들께서는 자유롭게 아이들의 간식을 준비하고, 뜨개질을 하고 계셨다.

▲ 이태영 사무국장님과 함께

우리의 무빙스쿨

3. 또 하나의 무빙스쿨, '자발적 불편'



휴대전화를 **강제 반납**하고, 새로운 목적지를 찾아 떠나는 순례자 처럼 짐을 챙겨 떠난 '무빙스쿨'. 간편한 길찾기 어플 대신에 사람들에게 물어 물어 길을 찾고, 잘못 내린 정류장에서 한참을 돌고 돌아 다음 정류장으로 걷고, 약속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간편한 휴대전화가 아닌 공중전화를 찾았다. 우으으으의리의 **'자발적 불편 실천 완료!'**



▲ 우리의 자발적 불편들.....

▲ 광화문 광장과 시청에서 계속되고 있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

우리의 무빙스쿨

3. 또 하나의 무빙스쿨, '도깨비시장'



▲ 착한소비! 도깨비 시장



▲ 공짜로 호박죽을 주신 사장님! 고맙습니다!

주어진 돈 개인당 만 오천원! 오늘만큼은 패스트 푸드점이나 대형음식점을 떠나 마을의 시장을 찾아가기로 한 우리는 그곳에서 마음 따뜻한 호박죽 집 아저씨와 '잘 다녀오라' 며 응원해주시는 설탕과배기 집 사장님이 계셨다.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며, 출발할~!



▲ 싼 가격의 맛있는 점심! 패스트 푸드나 대형음식점이 아닌 정성이 담긴 음식들!

우리의 무빙스쿨

4. 우리의 소감



여러 기관들을 알아보며 처음에는 개념도 잘 몰랐던 곳에서 이제는 더 다가가고 싶은 우리의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주위에 이렇게 우리를 위해 노력하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너무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않았나 반성도 하게 되었다. 함께하는 마음, 좋은 혜택, 내가 사는 곳의 미래를 위해 더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야겠다.



기관 조사, 컨택, 직접 방문 등 전체 무빙스쿨 과정을 통해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 특히 청년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을 보며 사회에서 강요하고 있는 청년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괜찮다는, 어쩌면 더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행복프리미엄' 이야기를 들으며 틀에 박힌 문화생활이 아닌 함께 재미를 공유하는 문화생활을 향유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평소 마을과 어색했던 내 모습을 돌이켜보게 되면서 무빙스쿨 내내 마음 한 편이 불편했다. 꼭 local 개념의 마을이 아니더라도 같은 관심사나 재미를 찾아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동안 나와 내 주변, 나의 관심사에 대해 정말 소홀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라운아띠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나의 첫 연결고리가 되었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함께' 라는 이름으로 나와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싶다.

우리의 무빙스쿨

4. 우리의 소감



배움의 과정이 반드시 답을 얻고 확신을 가지는 과정이 아니라 때로는 더 많은 물음이 생기고 불안을 얻는, 그래서 더 많이 공부하고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만난 두 명의 대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 그대로 정말 움직이며 더 많은 것을 배웠다. 광화문 일대와 시청역사 안에서 여전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고군분투 하는 사람들. 처음 보는 우리에게 선뜻 호박죽을 내어주신 도깨비 시장 아저씨. 길을 찾는 방법 하나하나 각자 다른 방식을 지니고 있었던 우리 조원들. 내가 지금 선 이 자리. 나의 주변에 이렇게나 배울 것이 많았구나-싶었다. 우리에게 남겨진 앞으로의 시간 동안 이날의 기억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마을과 청년이라는 주제로 시작했던 무빙스쿨이였고, 사전조사, 질문지를 만들어 찾아갔었는데, 마을과 마디의 조재완대표님, 신촌민회의 이태영 사무국장님의 얘기를 들으며 나 자신에 대한 고민을 물어보고 조언을 얻을 수 있었고, 마을에 대한 그분들의 생각,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마을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었다. 그런데 환승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



